

鼻의 氣色과 疾病과의 關係

李鍾律* · 蔡炳允*

I. 緒 論

韓醫學의 診斷은 『有諸內者, 必形于外』³⁰⁾⁴⁾라는 原理에 따라 人體의 外部에 나타나는 모든 現象을 望聞問切의 四診을 通하여 體內的 生理 및 病理의 狀態를 알아내는 것을 그 特徵으로 하고 있다.

특히 四診 中에서도 望診을 가장 重視하여 難經³²⁾에서는 『望而知之者 謂之神, 聞而知之 謂之聖, 問而知之 謂之工, 切脈而知之 謂之巧』³²⁾¹¹⁾라고 해서 望·聞·問·切中에서 望診을 診斷의 最高境地로 認識하였으며, 靈樞 本藏篇³⁾에서는 『視其外應, 以知其內藏, 則知所病矣』³⁾이라고 하고, 朱³⁰⁾는 『欲知其內者, 當以觀乎外』³⁰⁾라고 하여 望診이 診斷의 必須의인 要素임을 說明하였다.

望診은 觀形과 察色으로 大別할 수 있는데 難經³²⁾에서는 『望而知之者, 望見其五色, 以知其病也』³²⁾¹¹⁾라 하여 察色이 望診의 主된 部分이라 하였고, 靈樞 五色篇³⁾에서는 『五臟安于胸中, 眞色以致, 病色不見』³⁾라고 하여 氣色으로 五臟의 安危를 알 수 있다 하였고, 楊⁴⁾은 『血營于色, 氣充于澤』⁴⁾이라 하여 氣色은 人體의 氣血이 外部로 表現된 것이라 하였다.

또한 氣色을 觀察하는 경우 歷代醫家들은 鼻의 色을 가장 重要視 하였으니, 鼻는 얼굴의 中央部分에 자리잡고 있어 察色을 하는데 있어 重要한 部分이 된다.⁴⁾ 靈樞 五色篇³⁾에서 『五色, 獨決于明堂. 明堂者, 鼻也』³⁾¹⁾라 하여 面部의 五色의 變化는 明堂에서 決定되는데 明堂은 鼻라고 하였고, 靈樞 五閱五使篇³⁾에서도 『脈出于氣

口, 色見于明堂. 五色, 獨決于明堂乎』³⁾¹⁾³⁾라고 하여 五色은 明堂(鼻)에서 나타나며 氣色을 살필 때에는 鼻를 우선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麻⁹⁾는 『鼻, 乃明堂. 爲一面之主. 其上·下·左·右, 可候五臟六腑之病, 故爲最要』⁹⁾라 하고 張²³⁾은 『肺·心·肝·脾之候, 皆在鼻中』²³⁾이라고 하여 鼻가 얼굴의 君主이 되며 鼻를 中心으로 五臟六腑의 病을 살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鼻가 察色上에서 重要한 位置를 지니는 것은 韓醫學에서 말하는 『中以候中』⁴⁾, 卽 中央에서 微候가 가장 잘 나타난다는 原理에 따라 鼻에 臟腑·氣血의 變化가 反映된 氣色이 集中되어 있다는 데 있다.⁴⁾

이에 論者는 歷代文獻을 調査하여, 鼻의 氣色과 疾病과의 關係를 考察하는 過程에서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다음과 같이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黃帝內經素問²⁾

心熱病者, 顏先赤.(顏卽額也)¹⁾²²⁾ 脾熱病者, 鼻先赤. 肝熱病者, 左頰先赤. 肺熱病者, 右頰先赤. 腎熱病者, 頤先赤.(刺熱論)¹⁾²⁾

西方白色, 入通於肺, 開竅於鼻.(金匱真言論)²⁾¹⁾
28)

2. 黃帝內經靈樞³⁾

明堂者, 鼻也. 闕者, 眉間也. 庭者, 額也(卽額也)¹⁾²²⁾. 蕃者, 頰側也. 蔽者, 耳門也. 其間欲方大, 去之十步, 皆見于外, 如是者壽, 必中百歲(五色篇)¹⁾¹⁶⁾¹⁹⁾³⁾¹⁾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外官科教室

庭者，首面也。闕上者，咽喉也。闕中者，肺也。下極者，心也。直下者，肝也。肝左者，膽也。下者，脾也。方上者，胃也。中央者，大腸也。挾大腸者，腎也。當腎者，臍也。面王以上者，小腸也。面王以下者，膀胱子處也。顴者，后也。顴後者，臂也。臂下者，手也。目內眥上者，膺乳也。挾繩而上者，背也。循牙車以下者，股也。中央者，膝也。膝以下者，脛也。當脛以下者，足也。巨分者，股裏也。巨屈者，膝臑也。此五臟六腑肢節之部也。各有部分。有部分，用陰和陽，用陽和陰，當明部分，萬舉萬當，能別左右，是謂大道，男女異位，故曰陰陽。(五色篇)⁹³⁷

明堂骨高以起平以直，五臟次于中央，六腑按其兩側，首面于上闕庭(陽庭)，子宮在于下極，五臟安于胸中，眞色以致，病色不見，明堂潤澤以清，五官惡得無辨乎。(五色篇)¹⁶⁹³⁷

鼻者，肺之官也...肺病，則喘息鼻張。(五閱五使篇)¹⁷⁴¹⁴⁹³⁴¹

肺氣通於鼻，肺和則鼻能知香臭矣。(脈度篇)³¹¹

男子色在于面王，爲小腹痛，下爲卵痛，其闕直爲瘕痛，高爲本，下爲首，狐疝瘕陰之屬也。女子在于面王，爲膀胱子處之病，散爲痛，搏爲聚，方闕左右，各如其色形，其隨而下至脈，爲淫，有潤如膏狀，爲暴食不潔。(五色篇)³¹⁷

五色，獨決于明堂，明堂者，鼻也。(五色篇)³¹⁷¹¹
²²²⁷⁴⁸

明堂之色，青黑爲痛，黃赤爲熱，白爲寒。(五色篇)³¹¹⁷⁶

脈出于氣口，色見于明堂...五色，獨決于明堂乎。(五閱五使篇)³

明堂之色，沈濁爲內，浮澤爲外，黃赤爲風，青黑爲痛，白爲寒，黃而膏潤爲膿，赤甚爲血，痛甚爲瘕，寒甚爲皮不仁，五色各見其部，察其浮沈，以知淺深，察其澤夭，以觀成敗，察其散搏，以知遠近，視色上下，以知病處，積神于心，以知往今。(五色篇)³¹¹⁷⁶

視人之目窠上微壅，如蠶新臥起之狀，其頭脈動，時咳，按其手足上，窅而不起者，風水膚脹也。鼻頭色，微黑者，有水氣。(論疾診尺)³¹¹

鼻柱中央起，三焦乃約。(師傳篇)³⁴¹

鼻孔在外，膀胱漏泄。(師傳篇)³¹¹

鼻隧以長，以候大腸。(師傳篇)³¹¹

3. 扁鵲，難經³²

肺氣通於鼻，鼻和則知香臭矣。³²¹

4. 華佗，中藏經²¹

肺死，則鼻孔開而黑枯，喘而目直視也。²¹¹

5. 張機，仲景全書¹⁵²³

鼻頭色青，腹中痛，苦(舌¹)冷者，死。⁸²⁸¹²³¹⁵⁷¹¹

鼻頭色微黑者，有水氣。⁸²⁸¹⁵²³⁷¹¹ 色黃者，胸上有寒。⁸¹⁵²³⁷¹¹ 色白者，亡血也。⁸¹⁵²³⁷¹¹

色青爲痛，色黑爲勞，色赤爲風，色黃者，便難，色鮮明者，有留飲也。²⁸¹⁵⁷¹¹

6. 許叔微，普濟本事方³³

鼻冷定知是瘡疹。³³

7. 錢乙，小兒藥證直訣²⁶

面上，左腮爲肝，右腮爲肺，額上爲心，鼻爲脾，顴爲腎，赤色者，熱也，隨證治之。²⁶¹¹

疳在外，鼻下赤爛，自揉鼻，頭上有疳不着痂，漸遠耳生疳。²⁶

小兒，鼻乾黑，吹鼻不噴，鼻開張，皆不治證。²⁶

8. 陳言，三因極一病證方論³¹

鼻頭微白者，亡血也，赤者，血熱也，酒客多有之。³¹¹¹

9. 朱震亨，丹溪心法附餘³⁰

額爲心之部，鼻爲脾之部，左頰肝之部，右頰肺之部，顴爲腎之部。³⁰¹¹

10. 樓英，醫學綱目⁷

自額而下闕上，屬首·咽喉之部分也。自闕中循鼻而下鼻端，屬肺·心·肝·脾·腎，五臟之部分也。自目內眥挾鼻而下至承漿，屬膽·胃·大小腸·膀胱，六腑之部分也。自顴而下頰，則屬肩·臂·手之部分

也。白牙車而斜下頤，屬股·膝·脛足之部分也。⁷¹¹
下極者，兩目之間也。直下者，兩鼻而下也。⁷¹¹

11. 虞搏，醫學正傳¹²⁾

候其鼻準頭，色黃者，知其小便難也。^{121)28;15;23)}

肺之爲藏，其位高，其體脆，性惡寒，又惡熱，是故，好飲熱酒者，始則傷於肺藏鬱熱，久則見於外，而爲鼻衄準赤之候，得熱則紅，得寒則黑。¹²¹⁾

酒衄鼻，乃熱血入肺。¹²¹⁾

而鼻紫黑，面爲陽中之陽，鼻居面之中，一身之血，運到面鼻，皆爲至清至精之血，多酒之人，酒氣熏蒸，而鼻得酒，血爲極熱，熱血得寒，汚濁凝滯而不行，故色爲紫黑。¹²¹⁾

山根若見脈橫青，此病明知兩度驚，赤黑困疲時吐瀉，色紅啼夜不曾停。¹²¹⁾

12. 李梴，醫學入門²⁰⁾

左頰青龍屬肝，右頰白虎屬肺，天庭高而離陽心火，地閣低而坎陰屬腎水，鼻在面中屬脾。凡五岳，赤者皆熱，淡白者皆虛。²⁰¹⁾

鼻準，即明堂也。²⁰¹⁾

左頰爲肝，右頰爲肺，天庭爲心，地閣爲腎，準頭爲鼻。凡五岳，赤者皆熱，淡白者皆虛。²⁰¹⁾

準頭，紅黃者，無恙。²⁰¹⁾

脾熱者，面黃肚大，怠惰嗜臥，身熱飲水，鼻赤色。²⁰¹⁾

鼻衄者，鼻之準頭紅也，甚則紫黑，酒客多有之，因血熱入肺，鬱久則，血凝濁而色赤，或有不飲酒而紅者，名曰肺風瘡，亦是血熱入肺。²⁰¹⁾

小兒，鼻乾黑燥，肺絕。²⁰¹⁾

痘瘡...鼻燥有黑氣，以手抗鼻孔者必死。²⁰¹⁾

山根至鼻柱，紅者，心胃熱，大小便澁。²⁰¹⁾

年壽赤光，多生膿血。平者，壽。陷者，夭。²⁰⁾

13. 龔廷賢，萬病回春⁵⁾

額上屬心火南，左頤屬肝木東，右腮屬肺金西，鼻準屬脾土中，下頰屬腎水北。⁵⁾

小兒，指甲黑色鼻乾燥，靈丹十救一無生。

14. 李中梓，醫宗必讀¹⁹⁾

黃色見於鼻，乾燥若土偶之形，爲脾氣絕，主死。¹⁹⁾²⁸⁾

15. 許浚，東醫寶鑑¹⁾

肺在竅，爲鼻。¹⁾

蟲痛之證，時作時止，痛則咬心，口吐清水，人中鼻脣，一時青黑者，是也。¹⁾

16. 類經，張介賓²²⁾

下極者，兩目之間，相家謂之山根。下極之下爲鼻柱，相家謂之年壽。年壽之下者，相家謂之準頭，是爲面王，亦曰明堂。準頭屬土，居面之中央，故以應脾。準頭兩旁爲方上，即迎香之上，鼻隧是也，相家謂之蘭臺廷尉。脾與胃爲表裏，脾居中而胃居外，故方上應胃。²²⁾

肺心肝脾之候，皆在鼻中...病色不見，明堂必然清潤。²²⁾

17. 張璐，張氏醫通²⁴⁾

左腮屬肝，右腮屬肺，額上屬心，鼻屬脾，頤屬腎。²⁴⁾

18. 程國彭，醫學心悟²⁷⁾

鼻頭色青者，腹中痛。²⁷⁾微黑者，有痰飲。²⁷⁾黃色者，爲濕熱。²⁷⁾白色者，爲氣虛。²⁷⁾²⁸⁾赤色者，爲肺熱。²⁷⁾²⁸⁾明亮者，爲無病。²⁷⁾

若傷寒鼻孔乾燥者，乃邪熱在陽明肌肉之中，久之必將衄血也。²⁷⁾²⁸⁾

鼻孔乾燥，色如烟煤者，陽毒熱深也。²⁷⁾²⁸⁾

鼻孔出冷氣，滑而黑者，陰毒冷極也。²⁷⁾

凡病中鼻黑如烟煤，乃大凶之兆。²⁷⁾

若見鼻孔爛脹，爲肺氣將絕之症也。²⁷⁾

凡產婦鼻起黑氣，或鼻衄者，爲胃敗肺絕之危候。²⁷⁾

19. 張贊臣，中醫診斷學綱要²⁵⁾

面主陽明，額主心，左頰主肝，右頰主肺，鼻主

脾，類主腎。²⁵⁽¹⁶⁾⁽¹⁹⁾

鼻頭色青：腹中痛，苦冷者病重。²⁵⁾

鼻頭色黃：便難。²⁵⁾

鼻如烟煤：陽毒熱深。²⁵⁾

鼻色紅赤：風熱。²⁵⁾

鼻色白：氣虛或亡血。²⁵⁾

鼻色黑：為勞，微黑為有水氣。²⁵⁾

鼻色鮮明：有留飲。²⁵⁾

酒齶：寒氣之所搏。²⁵⁾

塌陷：正氣衰，癘風，梅毒。²⁵⁾

準頭赤：肺熱。²⁵⁾

準頭黑暗：人將亡。²⁵⁾

烏年壽：失血。²⁵⁾

20. 廣東中醫學院，中醫診斷學⁶⁾

鼻頭、色青，腹中痛，色黃，裏有濕熱，色白，亡血，色赤，脾肺二經有熱，色微黑，有水氣。⁶⁾

鼻色鮮明，無病或病將愈之證。⁶⁾

鼻孔乾燥，屬陽明熱證。⁶⁾

乾燥而色黑如烟煤狀，是陽毒熱極。⁶⁾

冷滑而色黑，是陰毒冷極。⁶⁾

21. 馬建中，中醫診斷學⁸⁾ 吳 吳國定， 內經診斷學¹¹⁾

鼻頭色青，腹中痛，苦冷者死。⁸⁽¹¹⁾

鼻頭色微黑者，有水氣。⁸⁽¹¹⁾

色黃者，裏有濕熱，胸上有寒。⁸⁽¹¹⁾

色白者，亡血也。⁸⁽¹¹⁾

色赤者，脾肺二經有熱。⁸⁽¹¹⁾

鼻色明潤，是無病或病將愈之兆。⁸⁽¹¹⁾

22. 李島三，中醫必讀¹⁶⁾

肺心肝脾之候，皆在鼻中。六腑之候，皆在四旁。¹⁶⁾

23. 徐學山，醫學門徑¹⁰⁾

鼻頭色青，腹中痛，若冷者死。蓋鼻者，上之位，青者，木之色，鼻頭色青，是肝木侮脾土，土微於鼻，下微於腹，是為暴病，頃之亡陽而卒死耳。¹⁰⁾

其謂鼻頭色微黑者，有水氣，言黑雖為腎陰之色，微黑且無腹痛，是水來乘土，但主水氣而非暴病也。¹⁰⁾

謂色黃者，胸上有寒，寒指為痰，言胸有積痰也。¹⁰⁾

謂色白者亡血，白者肺之色，肺主上焦，以行營衛，營氣充則鼻色白，故知亡血也。¹⁰⁾

色青為痛，肝木色青，腹乃脾部，此木實則痛，故主腹痛也。¹⁰⁾

色黑為勞，腎藏精，勞則精竭，傷腎故本色見黑，所謂腎虛則面如漆柴是也。¹⁰⁾

色赤為熱，風為陽邪，故色赤。¹⁰⁾

色黃者，小便難，小便淋閉，鼻色必黃，則黃色主鼻淵。蓋鼻者，肺之竅，

肺主通調水道，今小便難者，以熱燥津液，水道不利，故鬱蒸而鼻發黃色也。¹⁰⁾

色鮮明者，有留飲，鮮明者水之色，留飲者水所聚，經三木劫，日下有臥蠶，而日鮮澤是也。¹⁰⁾

24. 程紹恩 外，中醫診斷學²⁸⁾

鼻頭明潤，是胃氣未傷或病後胃氣來復的表現，為無病或病輕。²⁸⁾

鼻頭枯槁，是脾胃氣衰，胃氣不能上榮之候，多屬病重。²⁸⁾

鼻孔乾燥或黑，見于陽明熱盛傷津或陽毒熱深，是熱邪傷陰的表現。²⁸⁾

25. 原安徽中醫學院，中醫臨床手冊¹³⁾

鼻如烟煤，陽毒熱深。¹³⁾

26. 李樹棠，中醫基礎求真¹⁷⁾

鼻頭色青，是為寒邪，或為氣滯，多主腹中隱痛。¹⁷⁾

鼻色淡黃，是濕邪在裏，若赤色見于鼻，是為脾肺有熱的反映。¹⁷⁾

鼻色淡淡晦白，主氣脫亡血之象。¹⁷⁾

若鼻色黑暗，多為腎氣不足，水氣泛濫的表現。¹⁷⁾傷寒病人，鼻孔乾燥，是熱邪傳于陽明。¹⁷⁾

鼻孔乾燥而黑，色如烟熏，是為陽毒，熱勢已深的表現。¹⁷⁾

如鼻孔黑而滑潤，又屬陰毒的反映。¹⁷⁾
鼻頭紅色，兼有粉刺，是血分有熱，名爲酒渣鼻。¹⁷⁾

27. 李案雄，顏面望診法¹⁸⁾

鼻孔의 길이로 大腸을 살핀다.¹⁸⁾

28. 趙華萍，面相與醫療美容²⁹⁾

鼻頭色青，病在肝，肝色青，是肝經氣滯血瘀，其人必有腹中痛。²⁹⁾

鼻頭色白，病在肺，是肺經氣血虧虛，或有失血之疾。²⁹⁾

鼻頭色青黃者，是此人有淋病。²⁹⁾

鼻頭色赤，病在脾胃二經，是脾胃有風熱瘀積，鼻頭色赤或紫紅，多爲酒渣鼻。²⁹⁾

鼻頭色黃，病在脾，脾有濕熱，又主胸中有寒，又主便難。²⁹⁾

鼻青黃，面色晦暗，是肝臟機能不好。²⁹⁾

鼻黑黃而亮，是體內有瘀血。²⁹⁾ 黃黑枯槁，是脾火津涸。²⁹⁾²⁸⁾

鼻色晄白而不澤，主脾虛，脾胃虛寒，鼻色白，主肺病，寒痰，常見於慢性氣管炎。²⁹⁾

鼻色紅，潮紅且有皮脂溢出，爲酒渣鼻，常飲酒者鼻面皆紅，鼻紅且乾燥者，常有鼻衄。²⁹⁾

鼻紅腫，是熱毒熾盛，多患疔瘡之疾。²⁹⁾

鼻頭色微黑，是體內有水氣，鼻頭黑色，主腹中痛。²⁹⁾

女子鼻頭色微黑，爲膀胱和子宮病，如淋病，崩漏，帶下之疾病。²⁹⁾

鼻黑色爲勞，鼻頭黑色而乾燥者，爲房勞，鼻色灰黑而有肝斑者，多爲閉經，血虛血瘀之血勞。²⁹⁾

男子鼻頭黑色，黑色侵入人中者，主陰莖舉丸痛，爲狐疝之疾。²⁹⁾

鼻孔燥黑如烟煤者，爲陽毒熱深，或爲燥熱結于大腸，或爲肺氣將絕之證。²⁹⁾

鼻頭色黑光浮而明，如塗膏者，爲暴食不潔之食物。²⁹⁾

鼻孔冷滑而黑者，爲陰毒冷極。²⁸⁾²⁹⁾

鼻色明潤，爲無病，或病將愈之兆，鼻部色鮮明者，爲留飲。²⁹⁾

鼻色枯槁無光澤，爲死之先兆，鼻孔乾燥焦枯，爲肺絕之證。²⁹⁾

III. 考 察

各種의 文獻에서 언급하고 있는 鼻部의 氣色에 대해 整理해 보면 (1)鼻의 各部分과 人體內 臟腑·器官과의 相應關係, (2)鼻에 나타나는 各各의 氣色에 대한 疾病 및 病理로 區分하여 考察할 수 있었다.

1. 鼻의 各部分과 人體內 臟腑·器官과의 相應關係

1) 鼻 全體를 對象으로 觀察할 때

먼저 鼻 全體를 對象으로 觀察할 때는 刺熱論²⁾에서는 「心熱病者，顏先赤(顏卽額也¹⁾)，脾熱病者，鼻先赤，肝熱病者，左頰先赤，肺熱病者，右頰先赤，腎熱病者，頤先赤。」²¹⁾이라 하였고，錢²⁰⁾은 「面上，左腮爲肝，右腮爲肺，額上爲心，鼻爲脾，頰爲腎，赤色者熱也，隨證治之。」²⁶⁾¹⁾라 하였고，朱³⁰⁾는 「額爲心之部，鼻爲脾之部，左頰肝之部，右頰肺之部，頤爲腎之部。」³⁰⁾이라 하였고，李²⁰⁾는 「左頰青龍屬肝，右頰白虎屬肺，天庭高而離陽屬心火，地閣低而坎陰屬腎水，鼻在面中屬脾，凡五岳，赤者皆熱，淡白者皆虛。」²⁰⁾¹⁾이라 하였고，甄⁵⁾은 「額上屬心火南，左腮屬肝木東，右腮屬肺金西，鼻準屬脾土中，下頰屬腎水北。」⁵⁾이라 하였고，張璐²⁴⁾는 「左腮屬肝，右腮屬肺，額上屬心，鼻屬脾，頤屬腎。」²⁴⁾라 하였고，張²⁵⁾은 「面主陽明，額主心，左頰主肝，右頰主肺，鼻主脾，頰主腎。」이라 하여 顏面을 左頰·右頰·鼻·額·頰의 五部位，卽 五岳으로 나누어 觀察할 때는 鼻는 脾의 外候가 나타나는 곳이라는 것을 說明하고 있다.

以上の 配屬은 河圖를 面土에 代入한 것으로 推測된다.

2) 鼻의 各部位를 對象으로 觀察할 때

樓⁷⁾는 「自關中循鼻而下鼻端。屬肺·心·肝·脾·腎, 五臟之部分也」⁷¹¹⁾라 하여 鼻 自體內에서 五臟을 살필 수 있다고 하였는데, 五色篇³⁾에서 「下極者, 心也。直下者, 肝也。肝下者, 脾也。」³¹⁷⁾라고 하였으니, 樓⁷⁾는 「下極者, 兩目之間也。直下者, 兩鼻而下也。而王者, 鼻柱之端也」³¹⁷⁾라 하였고, 張²²⁾은 「下極者, 兩目之間, 相家謂之山根。下極之下爲鼻柱, 相家謂之年壽。年壽之下者, 相家謂之準頭, 是爲面王, 亦曰明堂。準頭屬土, 居面之中央, 故以應脾」²²⁾라고 하였고, 李는 「準頭, 爲脾」²⁰¹¹⁾라고 하여 鼻 自體만으로 볼 때는 兩目之間의 山根이라는 部位에서 心의 外候를 볼 수 있고, 山根아래의 鼻柱部位인 年壽에서 肝의 外候를 볼 수 있으며, 準頭 즉 鼻柱의 末端이면서 '面王', '明堂'이라고 일컫는 部位에서 脾의 外候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鼻의 附屬器인 鼻翼을 살펴보면, 五色篇³⁾에서 「方上者, 胃也」³¹⁷⁾라고 하였으니, 樓⁷⁾는 「方者, 鼻隆也」⁷⁾라고 하고, 張²²⁾은 「準頭兩旁爲方上, 卽迎香之上, 鼻隆是也, 相家謂之蘭臺廷尉。脾與胃爲表裏, 脾居中而胃居外, 故方上應胃」²²⁾라고 하여 鼻翼, 卽 '鼻隆', '蘭臺廷尉'라고도 일컫는 部位에서 胃의 外候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五色篇³⁾에서 「男子色在于面王, 爲小腹痛, 下爲卵痛」³¹⁷⁾이라 하여 鼻翼이 또한 男子의 睾丸과도 밀접한 關聯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師傅篇³⁾에서 「鼻隆以長, 以候大腸」³¹¹⁾이라 하여 鼻隆의 길이로써 大腸을 살필 수 있다 하였는데 樓⁷⁾는 「方者, 鼻隆也」⁷¹²⁾라 하여 鼻翼을 指稱하였고, 陸¹⁴⁾은 「鼻隆者, 鼻下口紋也, 相家謂之法令紋, 卽笑紋也。笑紋應過口角, 若不及口角者, 大腸通, 過口角者, 大腸廣長也」¹⁴⁾라 하여 法令線을 指稱하였으며, 李¹⁸⁾는 「鼻孔의 길이로 大腸을 살핀다」¹⁸⁾하여 鼻孔을 指稱하였다. 따라서 鼻隆가 鼻翼을 뜻하는 것인지, 法令線을 뜻하는 것인지, 或은 鼻孔을 뜻하는 것인지는 分明하지 않다.

以上の 配屬은 人體를 小人形化하여 面上에 代入한 것으로 推測된다.

2. 鼻部에 나타나는 各各의 氣色에 대한 病理 및 疾病

1) 鼻에 赤色이 나타난 경우

鼻에 나타나는 各各의 氣色에 對해 살펴보면, 刺熱論²¹¹⁾에서는 「脾熱病者, 鼻先赤」²¹¹⁾이라 하였고, 五色篇³¹¹⁾에서는 「明堂之色, 黃赤爲風」³¹¹⁾ 또한 「明堂之色, 黃赤爲熱」³¹¹⁾이라 하였고, 張¹⁵⁷⁷⁾은 「鼻頭, 色赤爲風」¹⁵⁷⁷⁾이라 하였고, 李는 「脾熱者, 面黃肚大, 怠惰嗜臥, 身熱飲水, 鼻赤色」²⁰¹¹⁾이라 하였고, 張²⁵⁾은 「鼻色紅赤, 風熱」²⁵⁾이라 하였고, 廣東中醫學院⁶⁾은 「鼻頭, 色赤, 脾肺二經有熱」⁶⁾이라 하였고, 趙²⁹⁾는 「鼻頭色赤, 病在脾胃二經, 是脾胃有風熱癢積」²⁹⁾ 또한 「鼻紅腫, 是熱毒熾盛, 多患疔瘡之疾」²⁹⁾이라 하여 이를 종합해 보면 脾胃에 風熱이 있으면 鼻가 赤色이 됨을 알 수 있다.

2) 鼻에 青色 및 青黑色이 나타난 경우

五色篇³¹¹⁾에서는 「明堂之色, 青黑爲痛, 痛甚爲擊」³¹¹⁾이라 하였고, 張¹⁵⁷²³⁾은 「鼻頭色青, 腹中痛, 舌冷者, 死」¹⁵⁷²³⁾ 「鼻頭色青, 爲痛」¹⁵⁷²³⁾이라 하였고, 許¹⁾는 「蟲痛之證, 時作時止, 痛則咬心, 口吐清水, 人中鼻脣, 一時青黑者, 是也」¹⁾라 하여 구체적인 腹痛의 例를 들었으며, 張²⁵⁾은 「鼻頭色青, 腹中痛, 苦冷者, 病重」²⁵⁾이라 하였고, 廣東中醫學院⁶⁾은 「鼻頭, 色青, 腹中痛」⁶⁾이라 하였고, 趙²⁹⁾는 「鼻頭色青, 病在肝, 肝色青, 是肝經氣滯血瘀, 其人必有腹中痛」²⁹⁾이라 하여 鼻頭의 青色은 腹中痛이 있음을 나타내는데, 그 原因으로 肝經氣滯血瘀나 寄生蟲, 或은 舌冷을 同作하는 厥陰腹痛임을 알 수 있다.

3) 鼻에 白色이 나타난 경우

五色篇³⁾에서는 「明堂之色, 白爲寒」³¹¹⁷⁾이라 하였고, 張¹⁵⁷¹⁶⁾은 「鼻頭色白者, 亡血也」¹⁵⁷¹⁶⁾이라 하였고, 陳³¹⁾은 「鼻頭微白者, 亡血也」³¹¹⁾라 하였고, 張²⁵⁾은 「鼻色白, 氣虛或亡血」²⁵⁾이라 하였고, 趙²⁹⁾는 「鼻頭色白, 病在肺, 是肺經氣血虧虛, 或有失血之疾」²⁹⁾ 「鼻色晄白而不澤, 主脾虛,

脾胃虛寒. 鼻色白, 主肺病, 寒痰, 常見于慢性氣管炎²⁹⁾이라 하였으니 이를 종합해 보면 鼻部의 白色은 亡血·失血이나 或은 氣血虧虛의 虛證이고, 晄白色은 脾胃虛寒, 肺寒 等の 寒證임을 알 수 있다.

4) 鼻에 黃色이 나타난 경우

張¹⁵⁾²³⁾은 『鼻頭色, 黃者, 胸上有寒』²³⁾¹⁾²⁹⁾ 『鼻頭色, 黃者, 便難也』²³⁾¹⁾²⁵⁾라 하였고, 虞等¹⁾¹²⁾은 『候其鼻頭, 色黃者, 小便必難』¹⁵⁾¹²⁾¹⁾라 하였고, 廣東中醫學院⁶⁾은 『鼻頭, 色黃, 裏有濕熱』⁶⁾이라 하였고, 趙²⁹⁾는 『鼻頭色黃, 病在脾, 脾有濕熱, 又主胸中有寒, 又主便難』²⁹⁾ 『鼻頭色青黃者, 是此人有淋病』²⁹⁾ 『鼻青黃, 面色晦暗, 是肝臟機能不好』²⁹⁾이라 하였으니 鼻頭的 黃色 或 青黃色은 濕熱로 인한 疾患으로서 小便難이나 淋病 등이 나타나고, 兼하여 面色이 晦暗한 경우에는 濕熱로 인해 肝機能에 異常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5) 鼻에 黑色이 나타난 경우

張²¹⁾²³⁾은 『鼻頭色, 微黑者, 有水氣』¹⁵⁾⁷⁾¹⁾라 하였고 許¹⁾는 『鼻頭色, 黑爲勞也』²³⁾¹⁾라 하였고, 張²⁵⁾은 『鼻色, 黑, 爲勞. 微黑, 爲有水氣』²⁵⁾라 하였고, 廣東中醫學院⁶⁾은 『鼻頭色, 微黑, 有水氣』⁶⁾라 하였고, 趙²⁹⁾는 『鼻頭色微黑, 是體內有水氣. 鼻黑色爲勞. 鼻頭黑色而乾燥者, 爲房勞』²⁹⁾이라 하여 鼻頭가 微黑色인 것은 體內에 水氣가 있음을 나타내고, 黑色인 경우는 勞倦傷의 所致임을 설명하고 있다.

6) 鼻의 色이 鮮明·明潤한 경우

張等¹⁵⁾²³⁾⁷⁾¹⁾은 『鼻頭色, 鮮明者, 有留飲也』¹⁵⁾²³⁾⁷⁾¹⁾라 하고, 張²⁵⁾은 『鼻色鮮明, 有留飲』²⁵⁾이라 하였고, 李²⁰⁾는 『準頭, 紅黃者, 無恙』²⁰⁾¹⁾라 하였고, 廣東中醫學院⁶⁾은 『鼻色鮮明, 無病或病將愈之證』⁶⁾이라 하고, 趙²⁹⁾는 『鼻色明潤, 爲無病, 或病將愈之兆. 鼻部色鮮明者, 爲留飲』²⁹⁾이라 하였으니 鼻頭 및 鼻部의 色이 鮮明하거나 紅黃한 것은 體內에 留飲이 있거나 或은 無病한 상태이며 病이 있더라도 將次 治愈될 것임을

알 수 있다.

7) 男性의 疾患이 鼻頭色에 나타나는 경우

五色篇³⁾에서는 『男子, 色在于面王, 爲小腹痛, 下爲卵痛, 其圍直爲莖痛, 高爲本, 下爲首, 狐疝瘕陰之屬也』³⁾⁷⁾라 하여 男子의 鼻頭 및 鼻翼, 人中の 色으로 疝症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色은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반해 趙²⁹⁾는 『男子鼻頭黑色, 黑色侵入人中者, 主陰莖舉丸痛, 爲狐疝之疾』²⁹⁾ 『鼻頭黑色, 主腹中痛』²⁹⁾이라 하여 鼻頭周圍에 黑色이 나타나면 小腹痛, 下爲卵痛, 莖痛, 狐疝瘕陰 등의 生殖器 系統의 疾患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8) 女性의 疾患이 鼻頭色에 나타나는 경우

五色篇³⁾에서는 『面王以下者, 膀胱子處也』³⁾⁷⁾ 『女子, 色在于面王, 爲膀胱子處之病, 散爲痛, 搏爲聚, 方圓左右, 各如其色形』³⁾⁷⁾이라 하였고, 師傳篇³⁾에서는 『鼻孔在外, 膀胱漏泄』³⁾¹⁾이라 하여 鼻頭 및 그 以下部位는 膀胱과 子宮의 疾患을 알 수 있다 하였다. 이 또한 구체적인 色은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趙²⁹⁾는 『女子鼻頭色微黑, 爲膀胱和子宮病, 如淋病, 崩漏, 帶下之疾病』²⁹⁾ 『鼻色灰黑而有肝斑者, 多爲閉經, 血虛血瘀之血勞』²⁹⁾ 『鼻黑黃而亮, 是體內有瘀血』²⁹⁾라고 하여 鼻頭周圍에 黑色이 나타나면 淋病, 崩漏, 帶下, 經閉 等の 泌尿生殖器 疾患이 된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鼻頭에 黑色이 散한 경우는 小腹痛이 되고, 黑色이 搏한 경우는 子宮系統의 積聚·經閉·瘀血이 되는데, 그 氣色의 形狀과 積聚의 形狀이 一致하며, 그 氣色의 左右가 積聚의 左右와 一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鼻頭色이 膏潤한 경우

五色篇³⁾에서는 『其隨而下至脰, 爲溼, 有潤如膏狀, 爲暴食不潔』³⁾⁷⁾ 『明堂之色, 黃而膏潤爲膿』³⁾¹⁾⁷⁾⁶⁾라 하여 鼻頭의 色이 아래로 口唇의 附近까지 至한 경우 그 色이 기름을 바른듯 潤氣가 있으면 不潔한 飲食을 暴食한 결과라 하면서 黃色이 膏潤한 것은 膿이 된다 하였다. 趙²⁹⁾는

『鼻頭色黑光浮而明，如塗膏者，爲暴食不潔之食物』²⁹⁾라고 하여 鼻頭가 黑色이면서 기름을 바른 듯 明潤하고 光浮하는 것은 不潔한 飲食을 暴食한 것이라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鼻와 鼻下의 黑色이 膏潤한 것은 不潔한 飲食을 暴食한 것이며, 黃色이 膏潤한 경우에는 體內에 化膿性 疾患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0) 鼻色이 마치 烟煤와 같은 경우

張²⁵⁾은 『鼻如烟煤，陽毒熱深』³⁵⁾이라 하였고, 廣東中醫學院⁶⁾은 『乾燥而色黑如烟煤狀，是陽毒熱極，鼻孔乾燥，屬陽明熱證』⁶⁾이라 하였고, 趙³⁹⁾는 『鼻孔燥黑如烟煤者，爲陽毒熱深，或爲燥熱結于大腸，或爲肺氣將絕之證』²⁹⁾이라 하여 鼻色이 마치 烟煤와 같은 것은 陽毒이 深化한 것이며, 특히 鼻孔이 乾燥한 것은 陽明經의 熱로 설명하고 있다.

11) 鼻色黑하며 鼻孔이 冷滑한 경우

廣東中醫學院 등은^{6,25)}은 『鼻孔冷滑而色黑者，是陰毒冷極』^{6,25)}이라 하여 鼻孔이 乾燥하지 않고 冷滑하면서 鼻部가 黑色인 경우에는 陰毒으로 인한 寒冷함이 極에 達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12) 鼻部가 黑色이면서 乾燥한 경우

華²¹⁾는 『肺死，則鼻孔開而黑枯，喘而目直視也』²¹⁾라 하였고, 錢²⁶⁾은 『小兒，鼻乾黑，吹鼻不噴，鼻開張，皆不治證』²⁶⁾이라 하였고, 李²⁰⁾는 『小兒諸病，鼻乾黑燥，肺絕』²⁰⁾ 『痘瘡，鼻燥有黑氣，以手抗鼻孔者，必死』²⁰⁾라 하였고, 龔⁵⁾은 『小兒，鼻乾燥，指甲黑色，靈丹十救一無生』⁵⁾이라 하였고, 張²⁵⁾는 『準頭黑暗，人將亡』²⁵⁾이라 하였고, 趙³⁹⁾는 『鼻色枯槁無光澤，爲死之先兆』²⁹⁾ 『鼻孔乾燥焦枯，爲肺絕之證』²⁹⁾ 『黃黑枯槁，是脾火津涸』^{29,28)}라 하였으니 이를 종합해 보면 鼻가 乾燥하면서 色黑·無澤·枯槁한 것은 脾火로 인한 肺絶의 死證으로서 主로 小兒에게 많음을 알 수 있다.

13) 酒醜鼻의 경우

五色篇³⁾에서는 『明堂之色，赤甚爲血』³¹⁾⁷⁶⁾이라 하였고, 陳³¹⁾은 『鼻頭赤者，血熱也，酒客多有之』³¹⁾라 하였고, 虞¹²⁾는 『好飲熱酒者，始則傷于肺藏鬱熱，久則見於外，而爲鼻醜準赤之候，得熱則紅，得寒則黑』¹²⁾ 『酒醜鼻，乃熱血入肺』¹²⁾ 『多酒之人，酒氣熏蒸，而鼻得酒，血爲極熱，熱血得寒，汚濁凝澁而不行，故色爲紫黑』¹²⁾이라 하였고, 李²⁰⁾는 『鼻醜者，鼻之準頭紅也，甚則紫黑，酒客多有之，因血熱入肺，鬱久則，血凝濁而色赤，或有不飲酒而紅者，名曰肺風疔，亦是血熱入肺』²⁰⁾이라 하였고, 張²⁵⁾은 『肺熱，準頭赤』²⁵⁾ 『酒醜，寒氣之所搏』²⁵⁾이라 하였고, 趙³⁹⁾는 『鼻頭色赤或紫紅，多爲酒渣鼻，鼻色紅，潮紅且有皮脂溢出，爲酒渣鼻，常飲酒者，鼻面皆紅，鼻紅且乾燥者，常有鼻衄』³⁹⁾이라 하여 酒醜鼻로 鼻部의 色이 赤色이거나 紫黑色인 것은 血病으로서, 飲酒로 인한 血熱이 主要原因임을 설명하고 있다.

14) 鼻柱(年壽)에 氣色이 나타나는 경우

五色篇³⁾에서는 『直下者，肝也』⁹⁾³⁷⁾라 하였고, 張²²⁾은 『下極之下爲鼻柱，相家謂之年壽』²²⁾라 하여 鼻柱(年壽)에서 肝의 外候를 볼 수 있다 하였는데, 師傳篇³⁾에서는 『鼻柱中央起，三焦乃約』³⁾이라 하였고, 李²⁰⁾는 『年壽，平者，壽，陷者，夭』²⁰⁾ 『年壽赤光，多生膿血』²⁰⁾ 『山根至鼻柱，紅者，心胃熱，大小便澁』²⁰⁾이라 하였으니, 鼻柱는 肝의 外候가 나타나는 곳이며 그 平·陷함으로 先天的인 健康狀態를 알 수 있고, 三焦와도 관련이 있다 하였다. 鼻柱가 紅色인 것은 心胃熱이라 하였으니, 赤光한 것은 心胃熱이 深化하여 膿血이 發生한 것임을 알 수 있다.

IV. 結 論

鼻의 氣色과 疾病과의 關係에 對해 文獻을 調査한 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色診을 할 때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觀察하여야 할 곳이 鼻頭(準頭)이다.
2. 鼻는 機能上 肺에 開發하지만, 色診時에는 五岳(額·頰·兩頰骨·鼻)과 對比되어 脾의 外候가 나타나는 곳이다.
3. 鼻 自體內에서 五臟을 觀察할 때는 鼻頭가 脾와 關聯이 있다.
4. 鼻翼은 胃의 外候가 나타나는 곳이며, 男子의 경우 牽丸과도 關聯이 있다.
5. 鼻柱(年壽)는 肝의 外候가 나타나는 곳이고, 先天的인 健康狀態를 살필 수 있으며, 三焦와도 關聯이 있다.
6. 鼻孔의 方向으로 膀胱의 狀態를 살필 수 있다.
7. 大腸의 外候가 나타나는 鼻隧라는 部位는 各家의 說이 서로 相異하여 正確한 位置가 不明하였다.
8. 鼻頭의 赤色은 脾胃의 風熱을 나타낸다.
9. 鼻頭의 白色은 血虛-氣虛와 같은 虛證이나, 脾胃虛寒-肺寒과 같은 寒證을 나타낸다.
10. 鼻頭의 青色은 急性腹痛을 뜻하며, 肝邪의 犯脾나 蟲腹痛이 그 原因이 된다.
11. 鼻頭의 黃色은 濕熱의 病理로서 小便難, 淋病, 肝機能 障礙의 형태로 그 病症이 나타난다.
12. 鼻頭의 微黑色은 水氣를 뜻하고, 黑色은 勞傷 특히 房勞傷을 나타낸다.
13. 鼻頭의 色이 鮮明·明潤한 것은 無病이거나 病이 治愈될 徵兆이며 或 體內에 留飲이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14. 鼻頭 및 그 以下의 人中부근까지 色이 나타나는 것은 男女 모두 生殖器 系統의 疾患이 있음을 뜻한다. 女性의 경우 色의 形態와 位置로 瘀血·積聚의 形態와 位置를 알 수 있다.
15. 鼻頭의 色이 膏潤한 것은 주로 不潔한 飲食을 暴食한 결과이며, 化膿性 疾患에서도 나타난다.
16. 鼻頭의 色이 마치 烟煤와 같은 것은 熱毒이 深化한 것이다.
17. 鼻頭가 黑色이면서 鼻孔이 冷溼한 것은 陰寒毒으로 困한 것이다.

18. 鼻가 黑色이면서 乾燥한 것은 脾火로 困한 肺絶의 死證이다.
19. 酒觥鼻는 血熱의 病理이며, 대부분 飲酒가 原因이 된다.

參 考 文 獻

1. 許 凌 :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內景·外形篇 p.131, 162, 164, 167, 187, 200, 339, pp.343-345, 1992. 雜病篇 p.16-17, p.166, 313. 婦人·小兒篇 pp.60-61, p.87, pp.98-99
2.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21, 119, 1985.
3.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115, pp.164-165, p.186, pp.226-227, p.309, 1985.
4. 洪元植 : 周易과 中國醫學, 서울, 法仁文化社, p.119, 168, 1983.
5. 龔廷賢 : 增補萬病回春, 台北, 大中國圖書公司, 下冊 pp.124-125, p.127, 1968.
6. 廣東中醫學院 : 中醫診斷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35, 1982.
7. 樓 英 : 醫學綱目, 서울, 一社, pp.39-40, p.43, 1992.
8. 馬建中 : 中醫診斷學, 臺北, 國立編譯館, pp.31-32, 1971.
9. 麻 衣 : 麻衣相法, 서울, 明文堂, pp.139-140, 1988.
10. 徐學山 : 醫學門徑,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pp.152-153, 1972.
11. 吳國定 : 內經診斷學, 서울, 大星文化社, pp.97-99, 1985.
12. 堯 搏 :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p.245, 246, 285, 1986.
13. 京安徽中醫學院 : 中醫臨床手冊, 서울, 成輔社, p.6, 1983.
14. 陸錦川 : 中醫望診相法, 北京, 中國醫藥科技

- 出版社, p.59, 102, 1991
15. 殷光周 外：金匱要略手冊，重慶，科學技術文獻出版社，pp.2-3, 1988
 16. 李島三：中醫必讀，서울，一中社，pp.41-42, 1992.
 17. 李樹棠：中醫基礎求真，吉林，吉林科學技術出版社，pp.196-197, 1991.
 18. 李案雄：顏面望診法，서울，鼎談社，p.21, 1993.
 19. 李中梓：醫宗必讀，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p.59, pp.61-62, 1987.
 20. 李 挺：醫學入門，南昌，江西科學技術出版社，pp.98-99, p.759, pp.912-914, p.969, 987, 1988.
 21. 李聰甫：中藏經校注，北京，人民衛生出版社，p.61, 1990.
 22. 張介賓：張氏類經，서울，一中社，上冊，p.184, 187, 1992.
 23. 張 機：仲景全書，서울，大星文化社，p.350, 1984.
 24. 張 璐：張氏醫通，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p.581, 1990.
 25. 張贊臣：中醫診斷學綱要，九龍，實用書局，pp.11-12, 1965.
 26. 錢 乙：小兒藥證直訣，北京，人民衛生出版社，p.8,25,38, 1991.
 27. 程國彭：醫學心悟，香港，友聯出版社，p.59, 1961.
 28. 程紹恩 外：中醫診斷學，吉林，吉林人民出版社，p.24, 1984.
 29. 趙華萍：面相與醫療美容，沈陽，沈陽出版社，pp.35-37, 1991.
 30. 朱震亨：丹溪心法附餘，서울，大星文化社，p.49-50, 1989.
 31. 陳 言：三因極一病證方論，北京，人民衛生出版社，p.226, 1985.
 32. 扁 鵲：難經譯釋，臺北，召人出版社，p.137, 206, 1974.
 33. 許叔微：普濟本事方，서울，一中社，p.147, 1992.